

최근 농식품 소비 흐름 반영

농진청,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 공개 3088점 등 총 20만7041건 식품 성분 정보 수록 농식품올바로에서 엑셀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식품 소비 유형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의 영양성분 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를 공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식품 원료와 음식 등 영양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것으로 1970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5년

단위로 개정돼왔다. 기존에는 5년 주기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공개했으나 지난해부터 변화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영양성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에는 식품 3,088점, 총 20만7,041건

의 식품 성분 정보가 수록돼 있다. 최근 세분화되고 있는 농식품 소비 유형에 따라 감귤, 버섯, 포도의 품종별 정보를 강화했으며, 소비량이 늘고 있는 햄, 썰미, 초콜릿, 녹차라떼 등 식품 98점이 추가됐다.

또한 두부, 팥, 찹쌀수수, 메추리알 등 82점의 식품이 최신 정보로 교체됐으며, 야생버섯 등 활용이 낮은 식품 45점의 정보는 삭제됐다.

영양성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E 등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양 세부정보를 포함한 130종이 수록됐다.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

진하는 건강·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영양·기능성 정보 개방에 따라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를 농식품을 바로(<http://koreanfood.rda.go.kr>)에서 엑셀 파일로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 내용을 '국가표준식품성분 검색' 기능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박동식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장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최신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정읍시 고부면에 위치한 고추 재배 농가를 찾아 영농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촌 인력 수급 어려움 '해소'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정읍시 영농철 일손돕기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정읍시 고부면에 위치한 고추 재배 농가를 찾아 영농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장기요 본부장과 박병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영업본부, 정읍시지부 임직원 20여명은 마스크와 장갑 착용 등 코로나 19 예방활동수칙을 준수하며 고추밭 멀칭(비닐 씌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포기가 이어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농촌·농가에 도움이 손길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전북본부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준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마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일손돕기 후에는 영농 폐자재(페비닐, 농약병) 수거 활동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마을 가꾸기에도 앞장섰다.

/김윤상 기자

전문건설협 전북도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물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지난 14일 협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작업을 지원하고자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김태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사님과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의 위기를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극복하자"며 "하루 빨리 모두가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건설업계도 철저한 현장관리, 방역 및 개인소독 철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질병 확산방지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내 2,600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업력확대 그리고 지역건설 활성화에 주력하는 전북도회는 이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와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 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하도급전담팀까지 구성하며 지역전문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공헌한 바가 큰 전북도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향후 지역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전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전문건설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윤상 기자

산지 온라인경매로 새로운 유통모델 알린다

aT, 양파 등 6개 품목 대상 산지-소비자 잇는 상시경매 본격 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경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T는 지난해 온라인경매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장경쟁력과 적합성을 검증하며 양파, 감마늘, 무, 배추, 감귤, 수박 등 6개의 품목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매일 또는 주 1회 상시 경매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상품 이미지사진만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지의 생생한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모델을 도입,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중간 유통 단계없이 농산물을 거래함으로써 물류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온라인경매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는 출하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산지직송을 통해 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T는 지난해 5월부터 9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온라인경매를 실시한 결과, 약 685톤의 경매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양파와 감마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경매를 실시한 결과 13일 현재 224톤의 농산물이 경매됐다.

앞으로도 aT는 표준화·규격화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경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농산물을 중심으로 신규 온라인경매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산물의 온라인경매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시스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경매플랫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제주도청과 감귤 사이버거래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감귤의 온라인경매를 통한 마케팅과 프로모션,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aT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과 거래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지

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정규 aT 유통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유통 전반이 크게 위축된 만큼 전에 없던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유통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경매가 새로운 농산물 유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경매 참여사 모집 등 자세한 사항은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홈페이지(www.ea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자체 배양 천마종균 공급

무주군, 이달 말까지 12만450명 공급키로

무주군이 4월말까지 자체 배양한 천마종균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종보다 4~5배가량 저렴하게 공급 중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12만 450명(1명당 1,000cc)을 공급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 이장원 팀장은 "천마종균의 질적 개선은 천마생산수량 증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중에 하나"라며 "우리 군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고품질 천마종균 생산

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우수 종균생산 및 공급을 위해 2019년도 ICT기반 배양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배양환경을 개선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만8,130명(1명당 1,000cc) 공급을 완료했다.

농가들은 "천마의 고장이라는 자부심만큼 좋은 품질의 천마를 생산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다"라며 "병해에 강하고 품질 면에서도 우수한 종균이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 기자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위한 보호활동 추진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수급자나 그 가족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부를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의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해도 안된다.

특히, 성적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